



으아아 즐라 박세

고등학생이 한국에서 컴퓨터 보안전문가를 꿈꾸면서 생각할 것들

3417 - 박성호

먼저 하는 이야기

필자를 포함한 한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보안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다. 또한 직업의 특성 상 대부분 보안 업계의 분위기는 딱딱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진 않는다.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터넷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어느 분야의 학문보다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해킹/보안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 습득 방식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어린 나이의 능력자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한다. 가장 큰 특징은 업무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흥미롭다는 것이다. 이런 매력적인 직업이 또 있을까.

하지만 모든 직업이 그렇듯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은 험하고 힘들다. 필자는 이런 험한 길을 걷기를 자청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굳이 보안 분야가 아닌 IT 분야 그리고 모든 한국의 고등학생들에게 해줄 전반적인 이야기도 다뤄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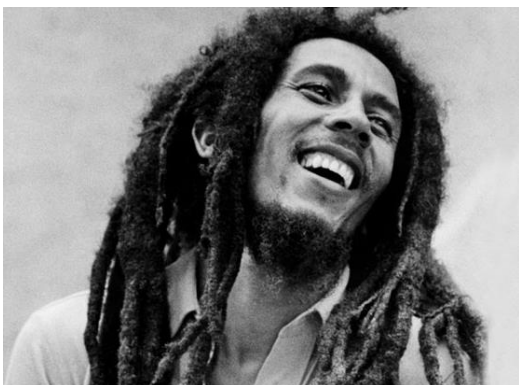
1

대학 먼저

시답잖은 이야기

식상한 말을 하자면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이 인생을 결정 짓지는 못한다. IT라는 분야 자체가 학벌보다는 본인의 능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공채 지원자들의 출신 대학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소리는 아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은 끊임없이 주위에서 자극을 받고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 간의 편차가 큰 시스템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으로 몰리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분류되고 별도의 그룹이 생성되며 그룹들 간의 차이는 극명해진다. 전공 수업과 이에 대한 커리큘럼의 질 또한 대학 별로 극한의 차이를 보여준다.



모두가 서울대, 한양대 컴공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하하 하하하하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어디에 속해있든 중요한 것은 본인의 능력이고 노력이다.

하지만 상위 그룹에서 끊임없이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고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점이다. 좁디 좁은 한국의 IT 업계에서 커리어를 쌓을 때 인맥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유념하자.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것과 지금 공부해만 하는 것의 괴리에서 현실에 낙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학을 갈만한 용기가 있지 않은 이상 순응해야될 현실이다. 필자처럼 쓸데없이 방황하진 말자.

결론은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통해 진로에 다가가고자 한다면 공부 잘 하던 놈들은 지금처럼만 잘하고 못하던 놈들은 더 잘해보자.

(내가 공부 안 하는 건 비밀)

2

간간히 컴퓨터 공부하기

도중에 만나는 난관들은 어떻게??

앞서 대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12년의 교육과정 동안 대입만을 바라볼 수 없는 노릇이다. 간간히(?) 컴퓨터 공부를 학업과 병행하게 되는 것은 IT 분야에 진출하길 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일 것이다.

필자는 굳이 보안이라는 분야에 한정 짓지 않고 어떤 것이 컴퓨터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 하려 한다.

컴퓨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카페에 가입해서 글 올리고 댓글 달고 셀카를 업로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글링’을 통해 국내외 커뮤니티의 정보를 습득하라는 것이다.



제발 여기에 다 있으니까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선검색 후질문’의 원칙을 지키자. 단, 검색 전의 고민
또한 필수

‘내가 만난 난관은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99% 정도 믿어보자. 프로그래밍을 코딩 하던 중 만나는 컴파일 에러는 에러 메시지를 구글 검색 창에 글자 한 토시 바꾸지 않고 넣어 검색하면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좋은 곳들에서 한글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영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 이다. 위에서 언급한 커뮤니티들은 대부분 해외 커뮤니티이고 이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또한 여러 공식적인 문서들은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마냥 한글 번역을 기다리는 사람과 영어로 직접 정보를 얻는 사람의 차이는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컨퍼런스, 강연회는 가능하면 모두 참가해보자.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되도록 발품을 팔아보자.

강연회와 컨퍼런스는 당신에게 지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여러 사례들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견문을 넓힐 기회이기도 하다. (사실 이쯤 되면 간간히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다 ㅋ)

3

대외 활동? 해, 말어?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 번째로 이야기 한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만 ‘대외’ 활동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겠다.

집에서 혼자 노트북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보안을 주제로 무엇이든지 하면 보안 관련 대외 활동이다. 보안을 주제로 한 대외 활동으로는 강연회, 컨퍼런스, 해킹 대회, 해킹 캠프, 정보 보안 동아리 등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은 견문을 넓힐 절호의 기회이고 보안 분야의 여러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이기도 하다. 최신 동향의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보안 분야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가질 수 있다. 행사 주최 측에 따라서는 기념품도 챙길 수 있다. ㅎㅎ. 대외 활동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마치며

★ 결국은 너에게 달렸다고 ★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일 뿐이다. 수준 높은 수학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생님의 수업을 경청하는 것뿐만이 아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수많은 대외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동들을 통해 얻은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융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만 유의한다면 즐거운 대외 활동과 이를 통해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건 다르게 아니라 너라고 너!

참고로 해킹 대회는 꾸준히 참가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우선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알고 있던 리버싱, 웹 해킹, 포렌식 등 많은 지식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혹여나 수상이라도 한다면 자신의 커리어에 멋진 이력을 추가 시킬 수도 있다.



아싸! 내가 건양대 컴공과 짬!

막상 쓰다 보니 보안이라는 분야 보다는 IT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쓰게 되었다. 하지만 IT 분야 안에 보안이 있으니 뭐 ㅎㅎ

결국은 모두 본인 몫이다. 그 무엇도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열심히 노력하자. IT 분야를 포함한 많은 분야들이 천재적인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이번 기사를 쓰면서 방학 동안 공부에 손도 안대고 열심히 자기만 한 필자도 반성 꽤나 했다. 모두들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자.

지면을 할애해준 **간재흠**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간재흠의 용안